티베트 스님의 50가지 지혜

적개심은 전생의 악업에 의한

윤회계 환영일 뿐

증오와 적대심을 사랑과 자비로 변화시켜라.

명백한 이유없이 우리에게 가해지는 일들로 고통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마치 중국이 티베트인들을 해친 것처럼 말입니다. 이는 우리들이 전생에 누군가에게 해를 입혔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무력으로 대항하면, 고통은 더욱 증가할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당신에게서 소중한 무언가를 훔쳐갔다면, 화내거나 우울해 하지 마시고, 분노하거나 후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복수나 앙갚음은 잊어버리세요. 마음 속으로 도둑이 무엇을 가지고 갔건 관용을 베풀고, 과거의 악업을 정화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증오에 대한 올바른 대처는 오직 사랑입니다. 붓다의 전생담 중에 인욕이 얼마나 완벽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날 왕이 숲을 거닐고 있었는데 그가 그늘에서 쉬는 동안 숲 속의 빈터에서 사는 현자의 발 밑에 왕비가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몹시 화가 났습니다. 이 은둔 수행자는 '인내의 대가'라 불리는 '크샨티바딘'이었습니다. 그가 인내의 대가라는 이야기를 들은 왕은 그를 시험해 보려고 화나게 만들려 했습니다.

첫째는 그의 두 팔을 잘랐고, 다음에는 머리를 잘랐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공역에도 불구하고 그에겐 사랑과 자비 이외엔 아무런 감정이 없었습니다. 그 현자는 훗날 그가 부처가 되었을 때 왕과 왕비가 그의 첫 번째 제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 글은 민족사에서 펴낸 〈세상 끝에서 만난 스님의 말씀〉 티베트 스님의 100가지 지혜 중에서 발췌했습니다.

흥천사, '도량 정비' 통해 사격 찾는다

2011년 사찰 운영권을 되찾은 서울 정릉 흥천사(주지 정념)가 도량 정비를 통한 '사격 찾기'에 본격 나선다.

흥천사는 "경기 포천시 소재의 토지 17㎡와 마을 도로의 10㎡, 서울 북악스카이웨이에 편입된 8필지를 '공용수용 및 부당이득금 소송'을 통해 정리하겠다"는 처분 승인을 조계종에 최근 제출했다.

이들 자투리 토지는 과거 내홍 당시 흥천사가 토지를 수차 매각 처분하거나 도로 등으로 수용된 것들로, 그간 사실상 맹지(盲地)로 방치돼 있어왔다.

흥천사는 자투리 토지 처분 적립금을 도량 정비 자금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흥천사 삼층석탑 앞 192㎡가 국유지로 돼 있기 때문이다. 흥천사는 국유지 사용료로 매년 400만원을 지불하고 있다. 삼보정재의 낭비를 막고 도량을 새롭게 정비하기 위해서는 국유지 매입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종단 역시 이런 사실을 인지하고 흥천사 도량 정비를 위한 자투리 토지 처분 승인에 긍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자투리 토지 공용수용 처분

사찰 내 국유지 매입 계획

일요 · 어린이 법회도 활성화

"실용적 정비로 문턱 낮출 것"

행정 처리를 진행하고 있는 법무법인 신아 김봉석 변호사는 "흥천사 소유 토지들은 모두 자투리 토지라 환수 처분에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며 "삼층석탑 앞 국유지의 경우 매년 공시지가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어 빠른 매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흥천사 주지 정념 스님은 "그간 방치됐던 흥천사의 사격을 되돌리는 데 필요한 사업들이 많다. 이번 자투리 토지 처분은 흥천사의 사격을 찾기 위한 방편"이라며 "이를 통해 사찰의 역할인 포교, 수행, 교육을 원할히 수행할 수 있도록 도량을 정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흥천사는 다양한 법회와 프로그램으로 지역포교 중심 도량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현재 흥천사는 초하루, 보름 법회뿐만 아니라 일요 정기법회, 어린이 법회를 운영하고 있다. 매주 일요일 오후 3시에 열리는 일요법회의 경우 기존의 법회 방식을 탈피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정릉 산책과 108배 등 문화와 신행이 어우러진 형식으로 진행된다.

또한 주야간 불교대학(매주 수요일), '명상과 힐링' 강좌(매주 화요일)를 운영해 불자들의 전문적 수행을 이끌고 있다. 불자들의 자비심을 고취하기 위한 봉사활동도 년 10회 가량 운영하고 있다.

정념 스님은 "처음 운영 정상화가 됐을 당시 정기 법회에 나오는 신도가 손에 꼽았지만 이제는 150명 가량이 꾸준히 동참하고 있다"며 "아직도 신도들이 불편한 부분이 많다. 도량을 실용적으로 정비해 누구나 편안히 불법을 만날 수 있는 사찰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이주 여성 자립 기원

조계종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3월 28일 종로다문화가족센터를 자비나눔 방문해 결혼 이주 여성들의 원만한 정착과 자립을 기원했다.

자승 스님은 장인수 종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무국장의 소개에 따라 센터 및 직원 현황에 대해 전해 들었으며, 종로구와 중구의 다문화가족을 위해 노력하는 임직원들을 격려했다. 또한 스님은 결혼 이민자들이 함께하는 자조모임에 참석하여 베트남 전통 음식인 짜조 만들기 요리체험 활동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조계종 공익기부재단 아름다운 동행은 센터 운영비 5백만 원을 지원했으며, 이주 여성 자녀들에게 학용품 세트를 전달했다.

신중일 기자

4월 15일 국민행복법회

종단협 이사회서 결의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자승, 이하 종단협)는 3월 2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대회의실에서 2차 이사회를 열고 4월 15일 대통령 초청 '한반도와 국민행복을 위한 기원 대법회' 등의 안건을 결의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참석여부는 미지수인 상황이다.

한반도와 국민행복을 위한 기원대법회에 대해 종단협 관계자는 "봉축전 한반도 평화를 위해 개최되는 법회다. 이때 박 대통령을 초청하고자 결정을 했지만 참석 여부에 대해서는 확답을 받은 상태가 아니"라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표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광화문 점등식 △호국불교를 위한 청계천 전통등 행사 △봉축분담금 종단별 후원금 결정 등의 사안을 결의했다. 정혜숙 기자

간화선 중흥 위한 법회 · 서화전 열린다

(재)선원수좌복지회, 4월 24일~ 5월 9일 조계사서

종정 진제 스님 시작으로

선지식 9명 릴레이 법문

(재)선원수좌복지회(이사장 의정)가 조계종 총본산 조계사에서 간화선 중흥을 위한 대선사(大禪師) 법회를 연다.

(재)선원수좌복지회는 "4월 24일부터 5월 2일까지 9일 동안 매일 오전 10시30분 조계사 대웅전에서 간화선 중흥을 위한 대선사 법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4월 24일 입재법회는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이 법사로 나서고, 이어 25일 혜국 스님(석종사 금봉선원장), 26일 월탄 스님(원로의원), 27일 대원 스님(학림사 오등선원 조실), 28일 무여 스님(축서사 문수선원장), 29일 설정 스님(덕숭총림 방장), 30일 현기 스님(상무주암 수좌), 5월 1일 도문스님(원로의원)이 법문을 설한다. 마지막 회향법회날인 5월 2일은 고우스님(원로의원)이 법상에 오를 예정이다.

법회가 열리는 기간동안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는 수좌 수행복지 기금 조성을 위한 선서화전도 함께 진행된다.

이번 선서화전에서는 경봉 청담 서옹 성철 월하 혜암 탄허 원담 석주 월산 스님 등 한국 근현대 불교를 대표하는 선승들의 글씨와 그림들이 출품된다. '걸레 스님'으로 유명한 중광 스님의 그림도 걸린다.

또한, 지난해 입적한 중요무형문화재 제118호 불화장(佛畵匠) 석정 스님의 작품 400여점과 인천 용화사 법보선원장 송담 스님의 선서화도 함께 선보여진다. 신중일 기자

범어사 율학대학원 인가

지난해 11월 총림으로 지정된 조계종 제14교구 본사 범어사(주지 수불스님)의 율학승가대학원이 설립 인가를 받아오는 4월 개원한다.

조계종 교육원(원장 현응스님)은 3월 28일 열린 133차 교육원회의에서 범어사의 율학승가대학원 설립을 공식 인가했다. 범어사 율학승가대학원은 앞으로 사찰승가대학원 표준교육과정에 따라 경분별, 법망경 및 대승계경 강독, 불교윤리학, 작법(수계의식)등을 교육하게 된다. 신중일 기자

봉 행

고승대덕 초청 보살품계 수계의식 및 영산 대법회

(사)한국불교조견종(照見宗) 창종 기념 한마음 전국 노래자랑

▶ 불기2557(2013)년 4월 28일(일요일) 오전 10시 30분 한국불교조견종 대본산 선화사 ◀

고승대덕 보살품수 수계의식

7증사 증명 법주 큰스님으로부터 보살 품수를 수계받은 자야말로
진정한 불자로 거듭 태어났다고 할 수 있다. 새로운 불자로 태어나는 것은 참으로
귀한 인연이 있어야 한다. 무늬만 불자이고 절에만 가면 무조건 불자라고
생각 하지만 반드시 그런것은 아니다. 경전에 이르기를 마음을 열고
진리를 받아들이는 날 비로소 거듭 새롭게 불자로 태어나는 것이다.

- 부처님의 계율을 받은 사람은 자신의 욕망을 이길수 있는 인간을 만들어 준다.
- 부처님의 계율을 받은 사람은 고독과 외로움을 불싱으로 승화시켜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 부처님의 계율을 받은 사람은 어떤 상황에 시련과 고통이 닥쳐와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고 사악한 기운을 물리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 특전 - 자신의 수행을 큰스님으로 부터 점검받고 보살 법계를 품수 수계함.
(의식 후 고가의 소원성취 기념품 전원 증정)

※ 당일 혼잡하오니 미리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희망의 소리 한마음 전국노래자랑

스트레스 우울증 화병 100% 한순간에 싹 사라지는
100세 수명장수 심리힐링 인연의 장!!!

☞ 당신도 음성공양으로 전법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시상 내역 : 최우수상 : 상장 및 상금 50만원 / 우 수 상 : 상장 및 상금 30만원 / 인 기 상 : 상장 및 상금 20만원 / *참가자 전원 고가의 소원성취 기념품 증정

❀ 찬조출연가수 : 가인, 소정 외 다수 / (사)한국불교조견종 문화예술전속무용단 MC / 한국연예인협회 부회장 안종남

❀ 응시자격 : 음악을 통해 예술적, 예능적 소양과 소질을 개발하고 삶의 진실을 찾아 진리를 배우고 익히며 어두운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어 세상 사람들에게 기쁨과 희망을 줄 수 있는 긍정적인 삶을 살아가시는 분.

❀ 특전 : 소질과 성량이 뛰어난 자는 우선 선발하여 소정의 교육이수 후 조견종 전법가수로 활동 방송음원 제작 및 행정적 재정적 후원함.

- 신청접수기간 : 2013년 4월 1일부터 28일 당일접수까지
- 신청접수전화 : (예약) 010-3365-9185 / 010-9228-0622
경기 파주시 파주읍 향양 2리 214-4번지 (사)한국불교조견종 대본산 선화사

신청인	성별	나이	주 소	신청곡 및 가수 이름

● 주 최 : (사)한국불교조견종 총무원 ● 후 원 : 불교TV, 현대불교신문사, 종교세계신문사

오시는 길 (버스) : 703번 (서울역,구파발) / 33번 (김포공항,일산) / 14번, 12번 (문산버스터미널)
017번 (마을버스 문산버스터미널 앞) : 오전 7시 5분, 10시 5분, 12시 5분. (금촌 주내 - 절도착, 절출발) : 2시 20분, 4시 20분, 6시 20분.